국내크레딧 2024년 11월 1일

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 종료



Credit Analyst

정혜진

☎ (02) 3772-2667 ☑ hyejin.j@shinhan.com

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펀드 수요 지지

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나,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유지되며 하이일드 펀드 수요를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. 2022년말 레고랜드 발 회사채 시장 경색 이후 회사채 조달 여건이 신용등급에 따라 양극화됐다. 2023년 1분기 기준 우량채 미매각률은 0.6%에 불과한 반면, A등급 미매각률은 15.8%, BBB+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.9%를 기록했다. 이에 중·저신용 회사채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됐다. 펀드가입액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(14%, 지방세 포함 15.4%)을 적용하여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. 세제적격 요건으로 BBB+등급 이하 회사채(A3+등급이하 전단채 포함)를 45% 이상 편입하고 유형에 따라 국내 채권 비중 60% 혹은 A급 비중 15% 등을 충족해야한다.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하위등급 회사채 수요 기반을 지지하는 수급 주체로 작용한 바 있다.

10/24 기준 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은 1.2조원으로 23년말 5,548억원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. 합리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세 혜택이 주는 투자 매력 역시 무시할 수 없으나, 인기 동력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으로 해석된다(펀드가입액 3,000만 원 한도, 연 수익률 7% 감안 시 최대 215만원 절세 혜택).

지난 2014년~2017년에도 저신용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바 있다. 2014년 1월 제도 도입 근거 마련 후 3월부터 하이일드 펀드가 출시되기 시작했다. 2014년 8월 설정잔고는 1.1조원으로 출시 5개월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. 특히 공모주 청약 우선배정권이 부여된 5월 이후에는 저금리 속 공모주의 높은 수익성에 힘입어 하이일드펀드 조성 실적이 급증했다. 공모주 10% 우선배정권으로 청약 대비 공모 물량 확보가 유리하다는 메리트가 하이일드 펀드 투자 수요를 끌어온 결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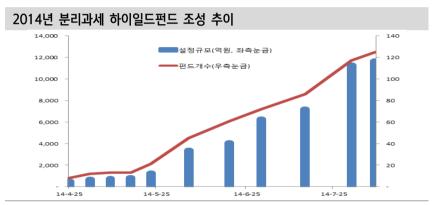
최근 IPO 청약 경쟁률은 평균 1,000:1 상회하고 있으며, 내년에도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하락으로 자본시장에 진출할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. 또한 연내 연속적인 빅파마향 기술이전/경쟁약물 대비 유효성, 안정성 크게 개선된 임상 결과 등 국내 바이오텍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. IRA 약가인하 정책, 생물보안법 등 우호적 규제환경도 조성되며 바이오섹터 투자심리도 살아나는 조짐이 포착되고있다. 내년 공모주 실적에 따라 좌우되겠으나 IPO 관심도가 높아질 여건이 조성된 상황으로, 분리과세 혜택 종료에 따른 하이일드편드 규모 위축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한다.



자료: 금융위원회, 신한투자증권



자료: 금융위원회, 신한투자증권



자료: 금융위원회, 신한투자증권

최근 IPO 기관 경쟁률 평균 900% 상회					
기업명	예측일	공모 희망가 (원)	공모가 (원)	공모금액 (백민원)	기관 경쟁률
더본코리아	10월18일	23,000~28,000	34,000	102,000	734.67:1
토모큐브	10월17일	10,900~13,400	16,000	32,000	967.71:1
에어레인	10월15일	16,000~18,500	23,000	27,600	1,000.10:1
에이치이엠파마	10월14일	16,400~19,000	23,000	16,031	1,220.68:1
탑런토탈 솔 루션	10월14일	12,000~14,000	18,000	45,000	841.12:1
에이럭스	10월11일	11,500~13,500	16,000	24,000	973.12:1
성우	10월10일	25,000~29,000	32,000	96,000	516.19:1
웨이비스	10월7일	11,000~12,500	15,000	22,350	1,159.89:1
클로봇	10월7일	9,400~10,900	13,000	39,000	933.9: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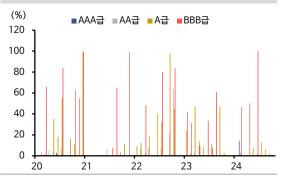
자료: 38, 신한투자증권

등급별 회사채 발행. A급 이하 발행 비중 확대



자료: 인포맥스, 신한투자증권

회사채 수요예측 미달률



자료: Dart, 신한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- ◈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정혜진).
- ◆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,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◆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기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 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 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.